

‘점검부터 새 과제 발굴까지’... 민관 정책협의회 본격 출범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중소벤처소상공인 자문기구 공동
한성숙·이광재 공동위원장 맡아
위원 72명 위촉... 4개 분과 구성
韓 “현장목소리 반영, 관계부처 협력”
李 “피터팬 극복 등 5대 과제 논의”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2027년 새 정책을 발굴하는 최상위 자문기구인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벤처캐피탈(VC), 협회 및 단체 등 총 7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중기부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내부적으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정체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외부적으로는 중동 정세 악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변화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함께 맡았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민관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4개 분과로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장은 조원표 메세이상대표(중소기업),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창업·벤처),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소상공인), 홍정원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상생·공정)가 각각 맡았다.

이들 위원장 외에 박혜린 오픈시스템 대표,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아 CJ올리브영 상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상 중소기업 분과), 이세영 뽀뽀테크놀로지 대표, 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대표, 이동훈 한국코스닥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창업·벤처 분과), 김현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박영상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상생그룹 본부장, 전화성 초기엑셀러레이터협회

장, 신희운 무신사 제휴사업실장(소상공인 분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 연구소장,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박희경 재단 경정 변호사(상생·공정 분과) 등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민관 정책협의회는 이미 발표한 중기부의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4개 분과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에 대해 매달 1회 이상 심층 논의와 토론을 거쳐 분기마다 열리는 전체 회의에 주요 논의 결과를 상정한다. 민관 정책협의회 성과는 올해 연말까지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중

소·벤처 생태계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 연기금 등 벤처투자 자금 유입, 기술탈취 방지, 보조금의존 구조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5대 과제를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고속 성장 기업, 성장 정체 기업 등 성장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할당제, 지원율 상향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 ▲신청서류 50% 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서비스 혁신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현대리바트

호텔·레지던스 상업공간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3년내 매출 2000억대 규모 확대목표

현대리바트가 호텔, 레지던스 등 프리미엄 상업공간의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000억원대 수준인 관련 사업 매출을 3년내 2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B2B 사업 영역을 신축 아파트에 가구를 납품·시공하는 빌트인 사업 위주에서 호텔·리조트와 하이엔드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한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하며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픈 예정인 호텔 ‘트레블로지역삼’의 사업 시행사인 블루코브자산운용과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AI 실무역량 강화” 스마트 경영 속도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리더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서며 전자적으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진기업은 최근 임원 및 본사 팀장을 대상으로 ‘AI Intensive’ 과정을 개설하고 AI 실무 활용 능력 키우기에 나섰다. /김승호 기자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차수에 걸쳐 진행하며 경영 일선에 있는 리더들이 AI를 전략적 도구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승호 기자

LIG넥스원

“국산화율 90% 목표”

구미에 함대공유도탄-II 시설 준공

LIG넥스원은 4일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하우스에서 함대공유도탄-II 유도탄 조립·점검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대공유도탄-II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와 순항유도탄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함대공 방어 유도 무기 개발 사업이다.

이번 준공식은 LIG넥스원이 지난 2024년 방위사업청과 함대공유도탄-I I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이번 사업은 업계 최초의 업체 주관 대공방어 유도 무기 체계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열폭주 막아라”... 배터리 안전소재 경쟁 본격화

배터리 소재 기업, ‘인터배터리’ 참가
LG화학 접착 등 안전 통합솔루션 선배
에코프로 LFP·전고체 소재 로드맵 공개
엘앤에프 울트라 하이니켈 경쟁력 제시

LG화학,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인터배터리 2026’에서 차세대 소재와 기술 경쟁력을 선보인다. 안전 소재부터 하이니켈 양극재, LFP까지 다양한 배터리 소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배터

리 열폭주를 지연·차단하는 통합 안전 솔루션을 선보인다. 열폭주 지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FB(Super Flame Barrier)’는 화염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단단하고 치밀한 장벽 구조로 변해 화염과 압력 전이를 동시에 늦추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해 배터리 팩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젤(Aerogel) 기반 열차단 소재 ‘넥솔라’도 함께 전시한다. 에어로젤은 우수한 열 차단 특성을 지닌 소재로 셀 간은 물론 모듈 사이, 배터리 팩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확산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를 통해 열폭주 지연 소재

와 에어로젤을 결합한 이중 안전 체계를 구현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중심의 삼원계 양극재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기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등 로봇 시대를 겨냥한 배터리 소재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성과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사업과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지난 4년간 약 8000억원을 투자해 니켈 제련 사업에 진출하며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다. 헝가리 양극재 공장은 유럽 역내 구

제 대응을 위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한다.

제품 라인업도 확대한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비롯해 미드니켈 양극재, 나트륨이온배터리(SIB) 양극재, 리튬망간 리치(LMR) 양극재 등 고객 맞춤형 소재를 공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대응을 위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소재도 선보인다.

엘앤에프는 LFP 양극재 신제품과 하이니켈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공개한다. 세계 최초 울트라 하이니켈 95% 양산 성과와 국내 최초 LFP 양극재 양산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과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인태연 “골목형상점가 지역명소 거듭 밀착 지원”

(소진공 이사장)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서 애로 청취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 신설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 모델 육성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을 신설해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 모델로 성장을 돕는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지난 4일 1913 송정역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골목형상

점가 등을 방문해 상권 운영 현황을 살피고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관계자,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대표들과 ‘광주 지역 골목상권 희망 ON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행보는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체감 변화, 온누리상품권 활용 현황, 상권별 특화 전략과 함께 디지털 전환·마케팅·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는 골목형상점가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643곳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정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579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는 자치구별 현장 조사와 상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에서 있는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진공

간담회 등 밀착 행정을 통해 소규모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정책 지원의 범위를 전통시장 중심에서 생활 밀착형 골목상권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승호 기자